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7권 1호(2017년 6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프린팅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이민경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연희, 김화수, 노성향, 이용승, 이희영, 윤재운,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용승(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류선영(강릉원주대), 박계영(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고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염미경(제주대), 이민경(대구대), 이소영(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덕성여대), 장혜진(대구대),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Akiko Hayashi(Meiji University), Ratih Pratiwi Anwar(Universitas Gadjah Mada, Yogyakarta)

편집간사 한아름

표지디자인 김수정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7년 제7권 1호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7권 1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논문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 **최병두** 1

이주정책의 입법현황과 발의자 특성-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

장임숙 48

대학 다문화교육에서의 '간문화성' 증대 방안

-교수-학습경험실천 모형 개발을 통해- / **김영경** 77

관심기반 실행모형에 근거한 현직교사의 다문화교육 관심 분석 / **강운선** 11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항목에 대한 일고 / **김명광** 134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 방안 연구 / **박성태** 161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7권 1호를 펴내면서

지난 20여년간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모임인 다문화 관련 학회와 대학부설 연구소들이 설립되었고, 정기적인 학술모임과 더불어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전환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에 관한 연구도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와 이를 발행하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역시 이러한 현실적, 학술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으며,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다.

특히 본 학술지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 이전 개인적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논문 투고를 권유했던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상당히 형식화·체계화된 논문 투고 및 심사과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본 학술지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문분야들이나 연구주제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분야나 주제를 지향하기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다문화적 현상들을 고찰하는 연구들에 개방되어 있다. 연구소의 명칭에 ‘정책연구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딱히 ‘다문화사회정책’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학술지는 외국인 이주자들과 이에 따른 민족적 측면의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예로 장애, 젠더, 섹슈얼리티, 고령화 등)에 따른 다문화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다소 의아스러운 점은 지난 호들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호에도 투고된 논문들 가운데 외국인 이주와 관련된 다문화 ‘교육’ 분야 연구 논문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호에 게재된 6편의 논문들 가운데 1편은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방법론의 모색에 관한 논문이고, 다른 1편은 다문화정책의 입법 현황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며, 다른 4편의 논문은 모두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

문이다. 물론 이 4편의 논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편은 다문화교육의 교수자의 입장에서 ‘간문화성’ 증대 방안이나 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 여부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2편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편성 또는 한국문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들이 우선 배열될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를 다소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논문 배열의 순서를 연구방법론 및 정책에 관한 논문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관련 논문 순으로 정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최병두의 논문은 초국적(또는 국제)이주 연구를 위한 기존의 연구방법론들을 고찰하고, 특히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관계이론의 유의성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최근 사회이론 일반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이 이론의 3가지 주요 개념들, 즉 행위자-네트워크, 번역, 위상학적 공간 개념 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개념들이 초국적 이주 연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임숙의 논문은 18대 및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의 입법 현황과 발의자의 특성을 고찰한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 국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발의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여 법률 반영도는 높았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발의활동이 다소 미진했고 법안 반영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관련 법안의 발의가 18대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발의자들의 다양성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발의자의 정당별 다양성이 줄어든 것은 국회 정당별 구성에 있어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실제 관련 법률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도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김영경의 논문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교과과의 실상을 살펴보고 ‘간문화성’의 증대를 위한 교수-학습경험 과정의 구성 및 전개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두 가지 명제, 즉 ‘지역 생태기반에 세계화의 전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다양성과 공존의 조합과 균형을 수렴하

고 운영하는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 다문화교육이 지역의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시민 양성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간문화교육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네 번째 강운선의 논문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관심 수준을 개인 변인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없지만, 성별, 연령대, 근무경력, 학교급, 다문화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 번째로 제시된 김명광의 연구는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공감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들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게 하위 교육과정 항목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박성태의 논문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읽기 교육의 효율적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 역시 김명광의 주장과 비슷하게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이들의 성격도 크게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한국어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습 부진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크라션(Krashen)의 자발적 읽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호에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들이 많은 것은 이에 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나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며, 또한 그 동안 본 학술지의 투고 논문 경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물론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도 계속 진행되어 많은 투고가 있기를 바라지만, 또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관한 다른 주제들에 관한 연구 논문들도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학술지가 다양한 연구 분야들에서 창의적인 연구주제들을 다룬 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조만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